

강진군, 상시 분리배출 '재활용 동네마당' 6곳 추가

올해 설치 목표량인 8개소 중 6개소 우선 설치 기존 14개서 총 20개로...오는 10월말까지 완료

강진군은 상시 분리배출이 가능한 '재활용 동네마당'을 올해 설치 목표량인 8개소 중 6개소를 우선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14개로 운영하던 재활용 동네마당은 강진읍 4, 군동면 1, 성전면 1개소에 추가 설치돼, 20개로 늘어났다.

나머지는 읍·면사무소 대상 희망 지역을 접수받아 이용 주민 수, 접근성, 지면상태, 통행 불편사항, 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분리배출 취약지역 2곳을 선정해 오는 10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요일에 상관없이 종이, 플라스틱, 캔·병류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

분해 상시 배출할 수 있는 가정 배출시설로, 반영형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며, 불법투기를 감시할 수 있다.

강진군은 전담 관리자를 2명 투입해 재활용 동네마당을 쾌적하게 관리할 계획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올바른 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영 환경축산과장은 "재활용 동네마당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닌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생활속 분리배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깨끗한 강진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폭염 대비 어르신 안전·건강관리 만전

진도군이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을별 경로당을 방문해 안전과 건강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주3회 운영되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시간을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한달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로 조정한다.

특히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8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는 실외일자리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

각 읍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116명도 폭염특보 발효시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건강과 활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군은 올해 역대급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로 경로당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8,400만원을 활용해 각 마을 경로당에 긴급 냉방비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진도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사랑QR상품권 이용하면 5% 적립해 드려요

해남군이 해남사랑QR상품권을 지난 달 15일 첫 출시한 가운데, QR상품권 이용시 적립금으로 되돌려 주는 기획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결제금액의 5%를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행사를 8월 한달동안 연장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QR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한 고객에게 총 결제액의 5%를 2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5% 할인구매한 상품권을 QR결제 시 총 10% 할인이 되는 셈이다.

현재 해남군내 QR가맹점은 총 901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QR상품권 가맹점 확인은 지역상품권 앱(chak) 하단 부분 '가맹점'을 누르고 '농협카드'부분을 'QR결제'로 변경하면 가맹점 목록이 조회된다.

QR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사업주는 해남군청 경제산업과(☎061-530-5352)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일정 수량이 모여야 QR코드 제작 의뢰가 가능하기에 가맹점 등록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사랑 QR상품권의 편리함이 알려지면서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QR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QR결제 시 적립금 기획행사를 한달 연장했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 노화 복고리, 일·휴가 즐기는 '워케이션' 마을 선정

해양수산부·한국어촌어항공단 추진,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완도군 노화를 복고리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됐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말로 일과 사무실이 아닌 휴가지에서도 여가를 즐기며 업무를 하는 형태를 뜻하며 일의 능률과 삶의 활력을 누릴 수 있어 새로운 근로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공모를 통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10개소를 올해의 워케이션 대상

지로 선정했다.

노화를 복고리에서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 중으로 바다를 보며 휴양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전복 주산지답게 전복을 직접 따보고 현장에서 시식하는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노화도에서 보길대교를 지나면 윤선도 유적지와 친환경 해변에만 부여하는 국제 인증 블루플래그를 획득한 보길 예송리 해수욕장, 전망대 등 깨끗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접할 수 있다.

완도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에서 워

케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에 나선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진 교육과 마을별 기반 시설 조성을 마치고, 사업 운영을 거쳐 '어촌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운영되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바다 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중소기업 근로자는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하는 기업·기관의 부담금은 근로자 1인당 6~19만 원 내외이다.

3박 4일간의 공유 오피스 사용, 숙박, 조식, 어촌 체험(회), 여행자 보험 등의 비용은 공단에서 지원한다.

완도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워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을 비롯한 각 권역의 기업·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완도군은 어촌 워케이션 운영과 함께 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귀어·귀촌 인구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워케이션 마을 지정을 계기로 우리 군 환경에 맞는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촌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자연아 놀자, 산들해 장흥 플로깅' 운영

장흥군은 제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 관광객 맞이 '자연아 놀자, 산들해 장흥 플로깅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흥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 협의회 등 회원과 학생 등 총 300여명이 참여하여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봉사활동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번 축제기간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관광객들의 분리수거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자원봉사 참여자들은 장흥교에서 시작해 장흥읍 주민센터까지 탐진강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천변 일대 환경을 정비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봉사로 참여한 활동이었지만 물축제도 만끽하면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활동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